



NEWS

|| ▾

우리가 그리는

연합뉴스

< |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

뉴스홈 | 최신기사

<올림픽> 박성화호 '기량도, 전술도 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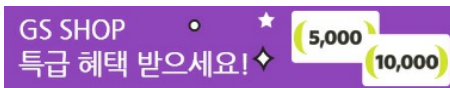
송고시간 | 2008-08-10 23:33

배진남 기자
기자 페이지

<올림픽> 박성화호 '기량도, 전술도 완패'

(친황다오=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했던 한국 남자축구가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였다.

한국은 10일 오후 중국 친황다오 올림픽스포츠허 스타디움에서 열릴 이탈리아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0-3으로 완패했다.



박성화 감독은 이탈리아전을 앞두고 "미드필더진의 공격전술에 변화를 줘서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카메룬과 1차전 때처럼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포백 수비라인은 그대로였지만 미드필더 라인에는 예고대로 변화를 줬다.

먼저 신영록(수원)과 이근호(대구)를 최전방에 세우고, 박주영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세웠다. 공격 자원 세 명을 모두 선발로 내세운 모험이었다.

하지만 오장은(울산)은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한 뒤 그 위에 김정우(성남)와 고성용(서울)을 좌.우로 약간 벌려 세웠다. 이탈리아가 4-3-3 포메이션으로 중원에 세 명을 배치하는 것에 대비해 우리도 미드필더 숫자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수비라인도 밀로 내려 배치했고, 좌.우 풀백의 공격 부담도 거의 없었다.

일단 중원에서 강한 압박으로 상대 좌.우 윙포워드 세바스티안 조빈코와 주세페 로시에게 연결되는 득점 루트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수비 안정을 꾀한 뒤 대반격을 노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 등 객관적 전력에서 한국보다는 분명 한 수 위 팀이었다.

이날 경기에서도 한국은 힘과 기술에서 상대에 완전히 밀렸다. 전술상 변화도 상대 선수들의 앞선 기량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미드필더 라인이 전반적으로 수비 쪽으로 처져 우리 진영에 숫자는 많았지만 상대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는 못했다. 일대일 돌파에 번번이 뚫렸고, 그런데도 협력 수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선수들이 전술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전반 32분 토마스 로키에게 내준 두 번째 실점 상황에서는 상대 오른쪽 풀백 마르코 모타가 김정우와 김동진을 뚫고 페널티지역 오른쪽 깊숙이 치고 들어가 로키에게 패스를 내줬다.

박 감독은 첫 실점 뒤 바로 박주영을 왼쪽 윙포워드로 돌려 4-3-3 포메이션으로 전형을 바꿨다.

후반 시작하면서는 신영록과 김정우를 빼고 백지훈(수원)과 이청용(서울)을 좌.우 미드필더로 투입해 그 동안 주로 써왔던 4-4-2 포메이션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1010회
모토 당첨결과 9 12 15 25 34 36 + 3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산'
기네스북 등재'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마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 체포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박 감독은 경기 후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었다. 선수들이 잘못했다기보다 전략이 잘못된 것 같다"고 패배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공격수 박주영도 "이탈리아가 매우 강하고 기술이나 모든 부분에 앞서 있었다. 하지만 선수들이 긴장하지는 않았다. 강한 상대를 만나 이기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인 기량이나 기술이 워낙 뛰어난 팀을 만나 앞으로 훈련이나 모든 것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osu1@yna.co.kr

🔗 관련기사

- 올림픽 <축구> 한국, 伊에 완패..8강 가물가물
- <올림픽> 박성화 "전략이 잘못됐다"
- <올림픽> 박성화호, 8강 진출 경우의 수는?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8/08/10 23:33 송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밀동밀동...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 01:59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당신을 위한 콘텐츠의 마당, 롯데캐슬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We Do Technology

2년1개월만 거리두기 전면해제...다음주부터 인원
·시간 제한없다

신규확진 12만5846명...위중증 999명, 이틀연속 900명대

尹당선인 "물가상승 장기화 대비...금리
인상 취약층 피해 최소화"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어"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댓글 많은 뉴스

-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찰에 고발

157
- 2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67
- 3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 염색...조기등판론 속 할
동재개 예정?

56
- 4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힐 예정"

41
- 5

[팩트체크]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계곡살인'을 검
찰이 혐의 밝혀냈다?

29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토픽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픽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계산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상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